

#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통해서 본 번역의 양상\*

-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를 중심으로 -

김순희\*\*  
pinky0209@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1994년 오에 겐자부로 노벨상 수상 |
| 2.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            | 4.1 『만연원년의 풋볼』          |
| 3.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 노벨상 수상 | 4.2 수상 당시의 소감 연설        |
| 3.1 『설국』                  | 5. 마치며                  |
| 3.2 수상 당시의 소감 연설          |                         |

主題語: 가와바타 야스나리(Yasunari Kawabata), 오에 겐자부로(Kenzaburo Oe), 노벨 문학상(Nobel Prize in Literature), 번역(Translation), 설국(Snow Country), 만연원년의 풋볼(The Silent Cry)

## 1. 들어가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라 한다면 노벨상(Nobel Prize)<sup>1)</sup>이라 할 수 있는데 1901년부터 다섯 분야로 나누어 수여되었다. 그중에서 노벨 문학상으로 말하자면, “이상(理想) 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분께” 수여하라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해마다 전 세계 작가들 중 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지금까지 배출 국가는 38개국이고 106명의 작가에게 돌아갔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1913년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가 『기탄잘리(신에게 바치는 송가)』로 수상하였다. 일본인 수상자는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5C-A0069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1)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인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이 1895년 작성한 유언에 따라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1901년부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의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다른 상들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수여되는 반면,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각 상은 모두 그 분야에서 매우 권위있게 여겨진다.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설국(雪国)』, 1994년 오에 겐자부로『만엔 원년의 풋볼(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로 2명 수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도전이 비교적 구체화된 것은 1988년 서울 ‘국제펜클럽대회’를 계기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매년 공식 후보를 추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5년 고은(高銀<sup>3)</sup> 시인이 외신 등에 의해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10일에도 노벨 문학상은 캐나다 소설가 앨리스 앤 먼로<sup>4)</sup>에게 돌아갔다. 한국 작가의 수상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일개 환상에 불과하였고, 현실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주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과제만을 제시해 주었다.

지금 서점가를 둘러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일본 대중문화 개방<sup>5)</sup>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일본 문학이 고전문학과 근·현대문학,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허물며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작가로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모리 오가이(森鷗外),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등이 있다. 게다가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추리 소설과 현대에 형성된 염세주의 소설의 대표자 격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를 중심으로 무라카미 류(村上龍),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 등 대중들의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장르와 왕성한 문학 창작력으로 일본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현재 한국 소설은 고유의 색은 얼어지고 플롯, 문체, 소재까지 이들 문학으로부터 많은 적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문학의 저변이 부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거론할 만한 처지는 아닌 듯하다. 내실을 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2) 아시아권에서는 인도(1913 타고르), 이스라엘(1966 슈무엘 요세프 아그논), 일본(1968 가와바타 야스나리, 1994 오에 겐자부로), 중국(2000 가오싱젠, 2012 모옌), 터키(2006 오르한 파크가)가 상을 받았다.

3) 고은(高銀, 1933~ )은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다. 그는 우리 시대의 민족 지성이자 풍부한 감성을 지닌 시인이자 소설가이고, 수필가이자 평론가이기도 하다. ‘20세기 세계문학사상 최대의 기획’이라는 「만인보(萬人譜)」의 고은. 1958년 등단한 이래 53년간 시, 소설, 평론 등의 저서를 150권 이상 세상에 내놓았고, 국내외 문학상 15개, 훈장 2개를 수상했으며, 세계 25개 국어로 번역서가 출간된 작가.

4) 앨리스 앤 먼로(Alice Ann Munro, 1931년 7월 10일~)는 캐나다의 영어권 소설가이다. 이는 캐나다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며, 노벨 문학상 역사상 열 세번째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노벨 문학상이다.

5)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개방 방침을 천명한 뒤, 1998년 10월, 1999년 9월, 2000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 7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방일정이 중단되었으나, 2003년에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 2004년부터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먼저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이하 가와바타라 함)와 오에 겐자부로(이하 오에 겐자부로라 함)가 수상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 및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문학의 노벨 문학상 수상 전망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국 문학 번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모색되리라 생각한다. 그리하면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 2.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

아직 번역이라는 분야는 일반 독자에게는 생소하다. 게다가 우수한 번역본인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문으로 쓰인 언어에 정통한 이가 아니면 번역이 정확한지 어떤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번역이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문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글로 표현하는 게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하의 선행연구는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와 작품 일부를 다루어 논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유숙자는 「창작으로서의 번역-『설국(雪國)』에 대한 단상」<sup>6)</sup>에서 가와바타의 『설국』이 일본 문학에 정통한 번역가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Edward G. Seidensticker)의 『Snow Country』의 “번역서도 하나의 창작”으로 본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논을 전개하고 있어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한국어판으로 번역된 모든 『설국』작품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 번역문의 표현에만 집중하고 있는 감이 있다.

이와 달리 박진수는 「소설의 번역과 시점의 문제-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설국』(雪國)의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sup>7)</sup>에서 지금까지의 소설 번역에 관한 논문은 주로 번역문에 표현된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과, 번역 이론 분야에까지 영역을 넓혀 도착어의 언어, 문화적 차이점까지는 번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논과 다른 견해를 펼치고 있다. 박진수는 언어표현의 뒷면에 내재하는 ‘시점’과 번역

6) 유숙자(2003) 「창작으로서의 번역-『설국(雪國)』에 대한 단상」 『동서문화』 제36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 박진수(2003) 「소설의 번역과 시점의 문제 :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설국』(雪國)의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31집, pp.7-15

표현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시점’ 이 원문과 번역본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가와바타의 『설국』의 서두 부분을 텍스트로 하여 일본어 원문과 영역, 한국어 역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지면 상의 제약에서인지 전문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3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표현을 비교·분석한 점은 우수하다.

이형진·황선혜는 「일본 현대 소설의 영어 번역가 사례연구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소설을 중심으로」<sup>8)</sup>에서 일본 현대 소설 중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가와바타 와 오에를 대표로 하여 그들의 번역을 담당했던 이들을 소개하고 영어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논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 번역의 문제점과 번역가의 우수성을 거론하고 있을 뿐 두 수상자의 작품이 노벨상으로 선정된 이유나 수상자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 표현의 고유성과 문학성을 논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원문과 번역본의 차이를 논할 뿐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6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와 1994년 수상한 오에를 소개하고 수상 당시의 시대 배경 및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수상작의 작품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 노벨상 수상

가와바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899년 6월 14일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16세 되던 해는 누나와 할아버지마저 잇달아 저세상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작가의 내면에는 ‘고아 의식’ 과 더불어 현실과 삶을 관망하는 자기만의 감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문학적 원숙기에 쓰인 작품 군에는 어린 시절의 외로움의 기억이라 할 수 있는 고독과 죽음이 짙게 배여 있다. 1924년 『문예시대(文藝時代)』를 창간하여 신감각파(新感覺派)의 일원이 되었 으며 『이즈의 무희(伊豆の踊子)』(1927) 등으로 작가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 후, 『수정 환상(水晶幻想)』(1931), 『서정가(抒情歌)』(1934), 『금수(禽獸)』(1935), 『천우학(千羽鶴)』(1952), 『고도(古都)』(1962), 『산소리(山の音)』(1954) 등을 발표했으며 『설국』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계속하였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된 『설국』은 비현실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8) 이형진·황선혜(2008)「일본 현대소설의 영어 번역가 사례연구 :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소설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Vol.9 No.4, 한국번역학회

순일(純一) 한 미(美)의 구축에 성공했으며, 가와바타 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196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가와바타가 글을 쓰고 있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1930년 런던해군 군축조약에서 서구열강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 시키고자 했다. 이에 반발하여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다. 1932년 국제연맹은 만주사변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일본은 이에 대항하다가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해 버린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일본인들의 관심을 중국으로 끌리게 만들었다. 특히, 이 시기는 일본인들의 관심이 서구문화에서 벗어나는 시기 이었는데다가 가와바타의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근대문물이 넘쳐나던 도쿄에서 벗어나 비서구화된 일본 전통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기간 동안에 중일전쟁(1937.7), 제2차 세계대전(1939.10), 태평양 전쟁(1941.2) 패전 등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작가들은 전쟁에서의 경험, 당시의 상황, 패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평론 및 문학작품을 통해 표현하였고, 문학사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 “신감각파”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불만을 가진 지식인과 문학 애호가의 지지를 받았으며, 가와바타도 도쿄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신진작가 약 20명과 함께 「문예시대」를 창간하였다. 그가 직접 창간사를 썼던 「문예시대」는 일본 문학계에 “신감각파”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가와바타는 초기 신감각파 문학에서 출발하여 모더니즘, 심심리주의 등 당시의 문예사조와 상황 등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그의 문학은 독자적인 미적 세계를 형성하였다.

가와바타의 전후(戰後) 문학세계는 일반적으로 ‘일본 회귀 선언(日本回帰宣言)’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전통미’를 담은 문학 세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가와바타의 경우, 종종 ‘일본의 패전=일본의 전통미로의 회귀’로만 인식되고 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원폭 투하 이후 종전되었지만 패전국의 국민이 겪어야만 하는 비통함과 애통함 등을 가와바타 역시 일기나 평론, 소설 등을 통해 써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가와바타는 ‘일본 회귀’ 혹은 ‘일본의 전통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전쟁과는 무관한 작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기로 하겠다.

가와바타는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겪으면서도 창작 활동에 전념하여 일본과 서구, 전통과 현대 등의 대립과 조화라고 하는 체계가 공존해 있는 작품 『설국』에 이르러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 3.1 『설국』

1934년 니가타현(新潟縣) 에치고(越後)의 유자와(湯澤) 온천 마을을 처음 찾은 가와바타는

이후 3년 동안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해 소설 『설국』을 집필한다<sup>9)</sup>. 그때마다 묵었던 곳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한 다카한 여관(高半旅館)으로 2층의 가장 전망 좋은 방이었다. 물론 이 여관은 작가 본인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마무라(島村)가 고마코(駒子)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다. 『설국』은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도쿄(東京)에서 기차를 타고 부모가 남겨준 유산으로 무위도식하는 무용 평론가인 시마무라가 게이샤인 고마코에게 끌려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의 온천장을 세 번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마을 처녀인 아름답고 순결한 소녀 요코(葉子)의 시선과 의식을 통해 백설(白雪)에 뒤덮인 온천장과 그 일대에 펼쳐진 자연과 인정, 풍속 등이 병풍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전개된다.

『설국』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sup>10)</sup>.

소설 속에 등장하는 터널은 1931년에 완공된 시미즈 터널<sup>11)</sup>이다. 작품 속의 ‘긴 터널’의 이쪽과 저쪽이 ‘현실적 세계’와 ‘비현실적 세계’로 대조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늘고 긴 일본 지형은 동북 일본과 서남 일본으로 자연, 인문, 풍토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도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자그마하고 인정 넘치는 동네로 가와바타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 소설의 무대인 다카한 여관은 화재로 인한 증개축으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가와바타가 묵었던 방만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데다가 설국관(雪国館)에는 고마코가 묵었던 방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아직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엔 소설 속 1930년대의 이미지가 묻어나는 낡고 오래된 스키장이 남아 있어 일본의 온천 마을 풍물과 눈 쌓인 겨울 풍경 묘사, 주인공의 허무와 아름다움에 대한 독백을 통해 일본의 전통미를 지금도 엿볼 수 있다.

『설국』 작품 속에는 서두에서부터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정경 묘사는 거의 시(詩)의 영역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눈 쌓인 온천 마을, 설산, 내연 모를 아름다운 여인, 게이샤 등 주요 장면이나 인물 등의 대상은 한 두 세기 전부터 서양에서 일본에 대한 환영(幻影)을

9) 1935년부터 「문예춘추(文藝春秋)」 등의 잡지를 통해 연재되었으며, 1937년 처음 간행된 이래 내용 보강을 거쳐 1948년에 완전판이 공개되었다. 작가는 1968년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10) 유숙자역(2002) 『설국』 민음사, p.7

11) 시미즈 터널(清水トンネル)은 조에쓰선(上越線)의 군마현(群馬県)과 니가타현(新潟県)의 사이에 있는 터널이다. 명칭은 부근(바로 위는 아니다)에 있는 시미즈토우게(清水峠)에서 따왔다. 시미즈 터널은 1922년 착공, 1931년 9월 1일 개통.

만들어 내는데 쓰인 대표적인 소재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난 슬픔이 빚어내는 지고(至高)의 미(美)를 상징적으로 그려 보이는 동시에 동양적인 애수(哀愁)의 미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형상화한 작품으로 탄생된 것이다.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기간 또한 13년(1935~1947)으로 원숙미마저 더해져, 작품은 아름다운 눈 속 고장의 정경 속에서 지순(至純)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설국』이 ‘일본적 미학’을 범세계적으로 증폭시키는 작품이 되었기에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1968년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 일본인의 마음의 에센스를 그리며 일본의 미를 추구한 일본인 작가 중 그는 가장 일본어를 아름답게 구사했다는 평을 들었다. 수상 당시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3.2 수상 당시의 소감 연설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인의 마음의 본질을 그렸으며, 정말로 섬세한 표현에 의한 그의 서술의 탁월함에 대하여”라는 이유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가와바타는 노벨상 수상식 당시, 복장에서부터 연미복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수여한 문화 훈장이 달린 문쓰키하오리하카마(紋付羽織袴)<sup>12)</sup> 차림으로 수상에 임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의 『설국』번역이 수상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하여 “이 상의 절반은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씨의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상금 50%를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가와바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과정에는 1961년 미시마 유키오가 영문으로 추천문을 써 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해외로 소개를 한 사람들의 역할도 컸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이나 추천의 공으로만 돌릴 수만 없다. 가와바타가 훌륭한 번역가를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이다.

「아름다운 일본의 나—그 서설(美しい日本の私—その序説)」은 가와바타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의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을 위해 집필한 원고 제목이다. 가와바타는 강연에서 자연을 감상할 줄 아는 일본인의 정서를 일본의 전통 와카(和歌)를 통해 이야기하고, 일본의 선(禪) 불교를 통해 동양적 예술관과 사상을 말하였다. 게다가 가와바타가 연설 첫머리에 인용한 도겐(道元)<sup>13)</sup>의 시 “봄은 꽃 여름 두견새 가을은 달 겨울 눈(雪) 해맑고 차가워라.”는 유명하다. 이 노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일본의 아름다움은 자연과 연관되어 계절 따라 변해가는

12) 일본 의상 문쓰키하오리하카마(紋付羽織袴)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으로, 집안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넓은 옷자락과 바지를 합쳐서 입는다.

13) 도겐은 가마쿠라(鎌倉)시대 초기의 선승(禪僧)으로 일반적으로 도겐선사(道元禪師)로 불리었다.

자연미(自然美)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에는 죽었다 다시 소생하는 인간 존재의 기쁨이나 생명, 죽음, 연민과 동정심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미에 대한 마음을 단적으로 말한 「아름다운 일본의 나-그 서설」은 세계를 향하여 많은 이들에게 일본의 고전문학과 예술을 소개하고, 그 근본을 이루는 전통적인 일본인의 심성이나 사상의 특질, 서구와 다른 생사관 등을 말한 일본 문화론인 동시에 작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현대 일본 문학자들에게도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강연이자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94년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4. 1994년 오에 겐자부로 노벨상 수상

오에는 1935년 1월 31일 7형제의 3남으로 에히메현(愛媛縣)에서 태어나 할머니에게 예술을 배웠다. 할머니는 1944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버지도 그 다음 해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오에를 가르치면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 「닐스의 모험」 같은 책을 사주었는데, 오에는 이 책들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소중히 여겼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프랑스 문학을 접하기 시작하여 파스칼, 카뮈, 사르트르 등을 탐독하였고 대학 시절에 이미 사르트르의 전 작품을 원어로 독파하여 졸업 논문도 「사르트르 소설에 있어서 이미지에 대하여(サルトルの小説におけるイメージについて)」(1959)이었다. 이처럼 오에는 사르트르의 사상과 문학을 접하면서 미국 점령 하에 놓여 있었던 일본에서 자신의 문학 방향을 잡아 나갔다.

오에는『사자의 사치(死者の奢り)』(1958)로 문단에서 인정을 받고 「사육(飼育)』(1958)으로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소설 『만엔 원년의 풋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오에는 어린 시절 일본 제국의 흥망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였고, 1947년 국민학교 명칭이 소학교로 변경되고 일본 평화 헌법이 제정되었다. 오에는 중학교 시절부터 평화 헌법에 기초한 민주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났으며 항상 양심적인 지식인, 행동하는 지식인, 전후 민주주의 자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민족주의 특히 일본의 천황제(天皇制)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평화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핵무



기와 헌법 제9조<sup>14)</sup>도 수필이나 강연에서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

#### 4.1 『만엔 원년의 풋볼』

오에의 문학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장애아로 태어난 장남 히카리(光)의 영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개인적 체험(個人的な体験)」(1964)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특히, 그는 히카리로 인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에 대하여 내면적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오에는 원폭 피해자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 「히로시마 노트(ヒロシマノート)」(1965)에 일본 땅에 원폭이 투하되고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핵무기가 인류를 위협하는 당시의 상황을 개탄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오에의 일본 국가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피폭자들의 고통과 임산부와 아이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연쇄적 피해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만엔 원년의 풋볼』<sup>15)</sup>이 발표된 1967년의 일본은 어떤 해이었을까? 1960년에서 1970년까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보투쟁<sup>16)</sup>의 한가운데 놓여 있기도 한때였지만 경제적인 풍요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를 흔히 ‘3C의 시대’라 하여 컬러 TV, 자동차 그리고 에어컨디셔너가 등장하여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해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만엔 원년의 풋볼』은 1967년 1월부터 7월까지 「군상」에 발표되어 오에의 글 자체가 변화하는 시작이기도 하였다. 만엔 원년은 1860년을 지칭하는데 이때부터 1960년까지 100년 간을 역사적 시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1968년에서 1969년에 걸쳐 학생운동은 학원민주화를 주안점으로 격화되고, 반안보, 베트남 전쟁 반대,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의 입항 저지 등의 거대한 정치적 운동으로 번져갔다.

일본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에는 특히 강대국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작용한 것이다. 1969년에는 학생 데모가 더욱 거세어져 동경대·동경 교육대 등의 입시가 중지되기도

14)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2003년 6월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15) 박유하역(2007) 『만엔원년의 풋볼』 웅진지식하우스, pp.33-105

16) 안보투쟁은 1960년 일본에서 미국 주도의 냉전에 가담하는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시민주도의 대규모 평화운동을 말한다.

하였다. 그리하여 대학 당국과 정부와 경찰은 총력적으로 이를 저지하기에 나서 데모의 기세도 차츰 꺾여 들어갔다. 오에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권 옹호에 깊이 관여하여 소비에트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의 석방 요구와 한국의 반체제 시인 김지하의 탄압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90년에 발표한 SF 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발표된 「치료(治療塔)<sup>17)</sup>」은 한마디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일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심리와 과정, 그로 인해 생겨나는 변화와 갈등 등을 심리 표현과 더불어 깨달음, 인간애마저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하여 1994년 오에 겐자부로는 “시적 언어로 현실과 언어가 뒤섞인 세계를 창조했고, 궁지에 몰린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이를 당혹하게 할 정도로 그림 그리듯 묘사한 공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오에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드시 노벨 문학상이 유럽인들의 이국(異國) 취향 때문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오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의 소감 연설 또한 그만의 색깔이 드러나 있다.

## 4.2 수상 당시의 소감 연설

1994년 10월 13일 스웨덴 아카데미는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오에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오에는 1994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수상 당일 기념 강연을 하였다. 제목은 「애매한 일본 속의 나」였고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26년 전에 강연했던 「아름다운 일본 속의 나」의 제목을 패러디했지만 내용은 사뭇 다르다.

오에는 「애매한 일본과 나」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일본은 애매함 때문에 과거 역사적으로 과오를 범했고 지금 또한 애매함 때문에 전쟁포기 서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 일본인으로서 그것을 막고 인류의 치유와 화해를 향한 소설가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가와바타의 ‘일본인의 마음의 정수를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서술의 탁월함으로 수상한 수상과는 달리 오에 문학의 ‘인류의 보편적인 테마가 평가받은 것’으로 세계문학에서 일본 문학이 시민권을 얻은 쾌거로 보며 일본인들은 자축했다. 그는 그 강연 도중에 “26년 전에 이 자리에 섰던 같은 나라 사람(가와바타)에 대해서 보다 71년 전에 나와 거의 같은 나이로 수상했던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에 대해 더욱 흔의 친근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가와바타와 분명히 선을 그으며 오에 자신의 문학을 확연히 드러냈다

말하자면 서양적인 지성으로 문학을 보편화하는 능력과 오에만의 탁월한 시적인 언어 세계

17) 오에 겐자부로(1996)『치료탑-치료탑 흑성 治療塔-治療塔 惑星』고려원, pp.15-89

에서 통하는 문학 코드가 받아들여져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와바타와 오에 두 작가를 살펴보았지만, 단순히 정치적인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이 유리하였기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성급하다. 두 작가의 뛰어난 작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 작가의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 번역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5. 마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문학에 심취한 저명한 미국 작가들이 일본 문학 전문가가 되어 그들이 직접 일본 명작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서양세계에 적극적으로 소개한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설국』이 일본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결정되기까지의 숨은 공로자는 아마도 미국인 사이덴스티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이덴스티커는 「나는 어떻게 번역가가 되었는가?」<sup>18)</sup>의 자서전에서 미국의 가난한 한 청년이 병역 문제로 고민하다가 우연히 통역 장교로 자원한 것을 계기로 일본 문화에 매료되고,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리랜서 번역가 겸 평론가로 활동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그 후, 일본 대학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거쳐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본 문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85년 은퇴했다.

일본 문학은 동양적 신비성(東洋的神秘性)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가 쓴 고전 『겐지 이야기(源氏物語)』는 일본의 교토(京都)를 무대로 한 고전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반에 이미 영국의 아더 웨일리(Arthur Waley; 1889~1966)교수에 의해 영어 번역판이 나왔고 사이덴스티커 교수가 보완한 번역판이 세계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런 고전 문학 번역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낸 사이덴스티커의 번역 실력은 과히 짐작되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동양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들은 모두 이국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이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약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 가와바타 야스나리 - 도쿄대 영문과에서 국문과로 전과.
- 오에 겐자부로 - 도쿄대 불문과 출신.

18)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권영주 역(2004)『나는 어떻게 번역가가 되었는가?(원제 Tokyo Central)』씨앗을 뿌리는 사람, pp.15-87

- 타고르 - 영국 식민지 시절 영어로 교육받음.
- 가오싱젠 - 중국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프랑스로 망명.

이렇듯 작가들 또한 이국 언어에 능통한 이들이라 할 수 있겠다. 200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오싱젠의 경우는 작가로서 그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우수한 작품을 써 왔다는 전제 이외에도 노벨상 수상의 공신 가운데 큰 공신은 당연히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마 위에 란(馬悅然, Goran Malmqvist)이라고 한다. 그는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 가운데 중국어(漢語)를 이해하는 유일한 원사(院士,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비교되는 지위)라고 한다. 그는 비단 중국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중국 현대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직접 중국 당대 작가들이 쓴 작품을 엄선하여 번역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 문학계가 세계 문학의 주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인류평화 등 글로벌한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것은 일본인 두 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검토를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내용에 충실하다면 그 진실은 언젠가 세계에 통용되리라 보기에 학문적, 문학적 소양을 갖춘 문학 작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해마다 한국의 고은 시인이 노벨 문학상의 유력 수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고은 시인의 작품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에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번역하기란 어렵다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이 꼭 번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굳이 노벨상과 관련짓지 않고도 우리의 사상과 정서, 우리의 숨결과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이웃 나라 사람들과 나누는 매체나 도구들은 많이 있다. 문학도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작품들도 미비하나마 외국어로 소개되고 있다.

천명관의 장편소설 『고래』<sup>19)</sup>를 번역하고 있는 재미 번역가 정재원은 “보수적인 자국 출판 문화에 불만을 품은 많은 미국인들은 인터넷 콘텐츠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고, 미국 출판사들도 신간 홍보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는 일이 흔해졌다.”라며 “한국 현대 소설에 대한 믿을 만한 서평을 제공하는 영어 블로그가 많이 생긴다면 한국문학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개개인의 힘이 모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의 문학 작품에 가오싱젠도 “나는 뜻밖에 생전에 다행히도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The Royal

19) 천명관(2004)『고래』문학동네, pp.21-205

Swedish Academy, 瑞典皇家學院)가 주는 이러한 큰 영예와 상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 각지의 친구들이 여러 해 동안 내 작품을 대가도 바라지 않고, 또 수고도마다 않고 번역, 출판, 연출과 평가를 해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라고 그의 수상 경위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미국에서 고은 시인의 영역(英譯) 시선집 『The Sound of My Waves 』(1994)이 미국 코넬대 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고 하니 우리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꼭 지면을 이용한 활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발달된 기기 문명을 이용한 한국문학의 신간 홍보를 위한 유튜브 동영상 활용과 한국 현대 소설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는 영어 블로그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활용한다면 한국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도 머지않으리라 생각한다.

**【参考文献】**

오에 겐자부로(1996)『치료탑-치료탑 흑성 治療塔治療塔 惑星』고려원  
 오에 겐자부로 저/박유하 역(2007)『만엔 원년의 풋볼』웅진지식하우스  
 박진수(2003)「소설의 번역과 시점의 문제 :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설국』(雪國)의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비교문학』제31집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저/권영주 역(2004)『나는 어떻게 번역가가 되었는가?(원제 Tokyo Central)』씨앗을 뿌리는 사람  
 유숙자(2003)「창작으로서의 번역-『설국』(雪國)에 대한 단상-」『동서문화』제36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유숙자 역(2002)『설국』민음사  
 이형진·황선혜(2008)「일본 현대소설의 영어 번역가 사례연구 :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소설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Vol.9 No.4, 한국번역학회  
 천명관(2004)『고래』문학동네

---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

---

 <要旨>
 

---

##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통해서 본 번역의 양상

-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를 중심으로 -

노벨 문학상은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1913년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가 수상하였다. 일본인 수상자는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 1994년 오에 겐자부로 2명이 수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부터 한국 작가 고은(高銀) 시인이 외신 등에 의해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과제만을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고심한 끝에 이웃 나라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가 수상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 및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문학의 노벨 문학상 수상 전망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국 문학 번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모색되리라 보았다. 그리하여 가와바타와 오에의 작품 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등을 살펴보고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였다.

## Japan's ‘Nobel Prize in Literature’ award-winning work through the aspects of this translation

- Yasunari Kawabata and around the Kenzaburo Oe -

As the Asian Nobel Prize in Literature in 1913 for the first time in India Badrinath Tagore Rabindra visibility (Rabindranath Tagore) has won . Japanese winner Yasunari Kawabata in 1968 , five in 1994 was awarded genjaburo two people . Among these writers Ko Un Korea since 2005 by the poet and the first Korean Nobel Prize foreign candidates were mentioned as heightened expectations . But just could not get past challenges presented by failing to return to him . South Korea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 so what you can do in order to end labored neighboring countries of Japan and five Nobel Prize winner Yasunari Kawabata Cain Kenjaburo Oe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award-winning writer and Nobel Prize learn about the details , from the overall to examine patients. Based on these results, outlook Korea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Nobel Prize will be made and further the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problems and solutions are sought shall be seen . Thus, rather than the work of Kawabata and Oe , and look at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Korea Writers higher possibility that the Nobel Prize was recognized anew.